

# 광주시 인사 당겨쓰기...고시출신 '만년 국장' 수두룩

### 올 3급 승진자 첫 0명 역대 최저...중앙부처 파견 기피 현상 한몫 이현 남구부구청장 7월 명퇴...승진자 3명에 경쟁률 9대 1

민선 8기 들어 누적된 '인사 당겨쓰기' 관행과 젊은 고시(考試)출신 간부의 중앙부처 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광주시의 간부급 승진인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공직사회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역대 처음으로 지난 1월 인사에서 3급 이상 국장급 승진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인사에서도 국장급 승진 인원이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내부에선 현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 산하 기관장 이동, 중앙부처 진출을 유도하는 등 팍팍한 인사 요인을 확대한다면, 하위직 인사에도 일부 승용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 등도 나온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2023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7월 기존 간부급 공로연수자는 3급에선 류

미수 복지건강국장 1명뿐이며, 4급도 행정·기술직 모두 합해 정창균·김영희·임영희·양병욱·이주성 등 5명뿐이다. 그나마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 한시 기구인 군공항 이전본부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인사요인이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존속기한 3년으로 3급 1명, 4급 1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협의 끝에 3급 1명(존속기한 1년 2023년 7~2024년 7월)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확보된 3급 승진요인은 두 자리에 불과하다. 과거 인사철이면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3급 승진자가 배출된 점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변수는 지난 2월 남구 자체로 부구청장(3급)으로 승진한 이현 남구 부구청장의 행보다.

광주시는 남구가 시 주도의 3급 승진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구를 상대로 인사교류 중단 등 각종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남구는 최근 광주시에 정년을 2년 넘게 남긴 이현 부구청장의 7월 말 명예퇴직을 공식화하고, 7월 부구청장 인사 요인을 배정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 부구청장의 명퇴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7월 인사에서 3급 승진자는 3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이어 3급 승진자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승진 경쟁도 역대급이다. 실제 현재 4급 과장급 90명 중 행정 20명, 기술 7명 등 27명이 3급 승진 후보로 경쟁할만 9대 1에 이른다.

3급 승진자리 기근 현상은 국장급 이상 간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시 출신의 중앙부처 파견 등 근무 기피 현상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광주시 2~3급 간부 20명 중 고시 출신은 12명으로 60%나 되며, 최근 시에서 고시 출신 3급 이상 간부가 중앙부처로 진출된 것은 2015년 7월 김정훈 당시 광주시 기획관에 이어 5년 5개월 만인

2021년 1월 허익배 부이사관이 유일하다.

중앙부처 내에 광주 출신 진출 간부가 없다 보니, 인사철만 되면 중앙부처에서 광주 출신 행정부시장(1급)이나 기획조정실장(2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월 시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서울 토박이인 배일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배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시의 한 9급 공채 출신 직원(5급)은 "민선 시대 이후 인사철만 되면 일단 승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타 기관 파견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승진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승진자 당겨쓰기 관행'이 고착화 되고 다수의 젊은 고시출신이 국장으로 승진하다 보니, 민선 8기 들어 3급 승진자리도 씨가 마른 것"이라면서 "과거엔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하는 '9급 신화'의 꿈을 이루는 선배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내

년엔 4급 이상 공로 연수자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내년 3급 공로연수 대상자는 1월 이정삼·이돈국 등 2명이며, 7월엔 박남주·송용수·박상백·김요성·곽현미 등 5명에 이른다. 2025년으로 확대하면 1월 김순옥·염방열·김재식 등 3명, 7월 배복환·김용승 등 2명이 공로연수를 떠난다.

공로연수 범위를 4급으로 확대하면 내년 1월 이계상·노규삼·송숙란·이경·심재봉·이보근·장봉주·박종우·김대중·심인섭·이한국·송진남 등 12명, 7월 송영희·성유석·오명호·박갑수·위경복·송해자 등 6명이다. 2025년 1월은 김용만, 박한용, 손옥수, 백정영, 이신, 최원석, 박준원, 김세훈, 손인규, 윤병철 등 10명, 7월에는 김영근, 김오수, 허경, 김대원, 이정신, 백남인, 박상석, 김정남 등 8명이다. 다만 이들 중 3급 승진 또는 명예 퇴직을 하거나 타 기관으로 옮기는 사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공로연수자는 유동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와 김한중(오른쪽 두번째) 장성군수가 30일 오후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장성군민과 함께 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전남도제공>

## 김영록 지사 "장성에 첨단전략산업 기반 구축 총력 지원"

### 도민과의 대화

"전남의 관문 장성이 대한민국 내륙 관광 중심지로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오후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민선 8기의 도정 성과를 직접 소개한 뒤 "장성군과 전남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시설인 국립심

뇌혈관연구소 설립, 광주·전남 상생 1호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의 경우 장성의 미래 먹거리로 전남도가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장성군 남면 일대 1만평 규모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 광주 근교 지역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지사는 또 장성군민과의 대화도 직접 주재하면서 ▲정령교육의 장 확대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 과정에서 노·사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전남도의 역할 주문 ▲장성 전체 청소년의 29%인 1200여명이 살고 있는 삼계면 일대 전무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 ▲장성 전통주 육성 등을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들은 뒤 담당 국장들의 구체적 답변까지 유도해 호평을 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도 이날 현장에서 "전남의 첫 관문인 장성이 전남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단 개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첨단 3지구 개발사업 등 장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어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2000여명의 군 장병, 가족들이 생활하는 삼계면 상무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삼계면 상무아파트~주산리 이곡마을 간 도로 4호선 확장(길이 600m·폭 10m) 공사비 지원(5억원)을 요청했다.

/장성=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교통사고·자살·산재 없는 도시로"

### 시민실천단 407명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발대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광주 범시민 운동이 시작됐다.

광주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정책지원단, 시민실천단으로 구성됐으며 공개 모집에서 선발된 407명이 참여했다.

사고다발 지역 교통안전 모니터링, 자살 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활동, 산재 취약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 등 활동을 펼친다.

참여자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안전 제감도, 사고

경험사례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나 자신 또는 가족, 친구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행정, 시의회, 시민 모두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발대식 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의 하나로 광산구 용진터널을 찾아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 상황 등을 살피고, 광주FC 축구전용 구장에서는 가변형 관람석 보강공사 계획을 점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1660억 투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귀리 등 70개 품목 보험료 90% 지원...농가 부담 경감

전남도가 빈번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도비 199억원을 포함 166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 가입을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0개 품목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시한은 옥수수·고구마 6월 9일, 대파 6월 16일, 일반

벼 6월 23일, 가루 쌀 7월 7일, 시설원에 작물은 12월 1일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0만6000농가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650억원이며 이 중 자부담액은 165억원이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받은 보험금은 총 992억원으로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면적 15만8000ha, 가입률 70%를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가입 농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행사·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농업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